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10가지 비용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반려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재정적 책임도 따른다.
호주의 「Choice」에서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하지만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는
10가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반려동물의 '집'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각 동물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동물에 따라서는 예상 가능한 지출이지만 반려동물의 수면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집고양이의 경우 소파나 침대 발치의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야외활동 고양이이라면 고양이 철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애완용 새는 적절한 크기의 새장이나 견고한 야외 조류 사육장이 필요하고 특정 종류의 어류나 파충류는 큰 보온 수족관이 필요하다. 양이나 염소 혹은 소를 위해서는 튼튼한 울타리와 울타리 내부에 날씨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풀을 뜯으며 돌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말의 경우도 비슷하며 소유주의 거주지에 말을 수용할 적당한 시설이 없다면 마구간 사용비를 지불해야 한다.

2. 중성화

호주 수의사 협회 임원인 브론윈 오어(Bronwyn Orr) 박사에 따르면 계획되지 않은 번식의 결과로 매년 125,000마리가 넘는 동물이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로 유입된다. 중성화 수술은 개와 고양이의 달갑지 않은 무계획 번식을 막아 동물 보호소로 들어오는 개체 수를 줄이고 높은 인락사율을 낮추는 데 일조한다. 중성화의 다른 이점은 암컷의 유방암과 자궁 감염, 수컷의 전립선 질병 확률을 낮춘다는 것이다.

중성화 수술은 일반적으로 수컷의 배회, 공격성, 소변 마킹과 같은 문제행동을 줄이고 암컷의 교미행동과 상상임신을 방지한다. 배회본능 또한 감소하여 싸움에 연루되거나 교통사고 같은 충격적인 사고를 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중성화가 완료된 동물은 지역의회 동물등록 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3. 연간 정기검진, 예방 접종 및 벼룩, 진드기, 기생충 치료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건강유지와 중대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려인은 자기자신보다 반려동물검진에 더 많은 돈을 지불 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의 경우 연간 평균 검진 비용(위급처치 및 약물 제외)은 아래와 같다.

- 개 \$ 397 (약 49만원)
- 고양이 \$ 273 (약 21만원)

고양이와 개는 벼룩, 진드기, 기생충에 감염되기 쉽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초래된다. 호주의 경우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병원이나 펫스토어 혹은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예방약의 연간 평균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개 \$ 248 (약 19만원)
- 고양이는 \$ 159 (약 12만원)

4. 그루밍 (미용/손질)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 그루밍 비용이 발생한다. 일부 단모종의 털은 상대적으로 유지관리가 용이 하지만 다른 종들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정기적인 손질이 요구된다. 특히 장모종의 경우 규칙적인 손질이 중요하다. 꾸준한 그루밍으로 먼지나 죽은 피부, 늘어지거나 엉킨 털 그리고 털에 박힌 잔디 씨 등을 제거하고 가을과 봄의 털갈이 시즌에 빠지는 털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반려인이 직접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5. 교정 수술

특정 반려동물 품종은 유전적 결함을 타고나 교정을 위한 치료를 등한시할 경우 삶의 질이 하락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불독, 페르시아인과 히말라야 고양이처럼 심미적 목적으로 교배된 소위 '순혈품종'이나 '디자인어품종'은 호흡 곤란에 시달릴 수 있고 특정 품종에 따라서는 질병에 취약하거나 눈병, 피부병, 등과 엉덩이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비용은 반려인에게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정 품종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수술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

6. 마이크로칩이식과 동물 등록

호주 북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 칩 삽입과 동물등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 마이크로칩이식은 일반적으로 브리더, 공급자 또는 수의사에 의해 이행되지만 마이크로칩 번호가 있어야 가능한 동물등록은 해당 지역의회를 통해 반려인이 신청하고 등록비를 지불해야 등록완료가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고양이나 개는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확률이 높으므로 칩을 이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어 박사는 말한다

파충류와 토종동물은 주 환경부에 등록되고 소유주의 의무와 관련법은 또 다르다. 토종동물을 소유하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법을 어길 경우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 국내에서도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 등록방법으로는 내장형(마이크로칩) 개체 삽입, 외장형 부착, 등록인 식표 부착이 있다. 등록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에서 가능하고 등록방법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한다.

7. 훈련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자극강화반응요법을 참을성 있게 반복하면 훈련이 가능하다. 개는 특히 긍정행동을 강화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여 한계와 기대치를 설정해 주는 조기 훈련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의 행복과 복지에 필수적이다. 만약 개를 키울 계획이라면 조기훈련 관련 비용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어 박사에 따르면 강아지는 약 3주에서 17주 사이가 '핵심 사회화 기간'이며 이 시기에 강아지 유치원을 적극 추천한다.

8. 반려동물 맡기기

휴가를 계획하는 반려인은 적절한 돌보미 서비스를 구해야 한다. 믿을 만한 펫시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운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펫시팅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통은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이나 병원을 이용하게 되며 이로 인해 휴가 예산이 뼈뺏해 질 수도 있다. 오어 박사에 따르면 호텔이나 병원의 대안은 펫시터나 동물 친화적 숙박 시설이다.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펫시터와 반려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어플 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은 반려동물 친화적 숙박 시설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9.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반려동물의 사료값은, 특히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식단이 요구된다면 충격적일 수 있다. 2016년 호주 가정의 반려동물제품 소비 추정금액 122억 달러 중 3분의 1 이상이 사료에 할애되었다(35%).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은 반려동물이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과 활력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 연료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다. 영양요구량은 반려동물의 성별, 종, 품종, 연령 및 활동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의 식단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탄수화물 및 신선한 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들은 자신의 제품이 슈퍼푸드를 포함한 육류 함량이 높은 무곡물 사료(grain-free) 제품으로 인간이 섭취 가능한 성분등급의 고품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리미엄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정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10. 죽음과 화장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반려인들은 슬픔을 무릅쓰고 자신의 반려동물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동물의 종류나 사망 당시 환경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집에서 키우는 작은 반려동물의 경우 비용 처리없이 뒷마당에 매장이 가능하지만 덩치가 큰 동물의 사체는 건강과 안전 이유로 인해 적절하게 처분되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수의사는 통상 유료로 사체를 처리해 준다. 화장을 하고 재를 돌려받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동물 묘지에 매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화장이나 매장 패키지 비용은 공급자마다 크게 다르다.

일부 지역의회는 사망한 반려동물을 위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지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죽은 동물을 유료로 수용한다. 반려인은 등록된 동물의 사망을 해당 지역 의회에 고지해야 하며 동물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험이 필요한가?

호주의 「Choice」 조사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은 비용에 비해 효용이 아직 회의적이다.

*출처: 호주의 「Choice」 2019년 7월



국내에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은 합법지만 정서상 거부감이 많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소각한다.

동물병원에서 사망했을 경우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 폐기물로 소각할 수 있다.

동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다.

동물장묘업의 등록된 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다.

※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땅에 묻는 방식은 땅이나 지하수의 오염 등의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동물 공공묘역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다면 매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